

〈번역논문〉

唐代 前期 宮中政變을 둘러싼 北衙의 동향*

하야시 미키(林美希) 著

鄭炳俊 譯**

〈목차〉

- I. 머리말
- II. 唐代 兵制에서 북아의 위치
- III. 다섯 차례의 궁중정변 형세와 병력의 동향
- IV. 궁중정변의 조건과 북아의 이론(theory)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사의 수많은 왕조 중에서도 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화려한 궁정 귀족문화가 상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면 당은 帝位를 둘러싸고 치열한 궁중투쟁이 반복된 시대이기도 하였다. 高祖에 의한 당의 창업에서부터 玄宗 말기에 일어난 안사의 난에 이르기까지 약 140년 동안(이 책에

* 이 글은 林美希, 『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 汲古書院, 2020의 제1장 「唐代前期宮廷政變をめぐる北衙の動向」을 번역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는 이 기간을 당대 전기라고 칭함)의 정국은 항상 궁중정변에 의해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다.

〈표 1〉 당대 전기의 궁정정변과 황위계승

황제/연호 (서력)	왕권이양과 궁정정변
高祖 武德9 (626) 太宗	6월 : A玄武門의變, 8월 : 太宗 즉위
高宗 顯慶5 (660) 弘道1 (683) 嗣聖1 (684)	10월 : '二聖' 정치의 개시 12월 : 高宗 붕어, 中宗 즉위 2월 : B中宗廢位の變 + 睿宗 즉위
武則天 神龍1 (705)	1월 : C張易之兄弟誅殺의變 + 中宗 복위
中宗 神龍3 (707) 唐隆1 (710)	7월 : D李重俊의亂 6월 : E韋后一派誅殺의變 + 睿宗 복위
睿宗 太極1 (712) 先天2 (713)	8월 : 睿宗 上皇, 玄宗 즉위 7월 : F太平公主一派誅殺의變
玄宗 天寶14 (755) 至德1 (756)	11월 : 安祿山の거병 7월 : 玄宗 上皇, 肅宗 즉위
肅宗	

당대 전기에 궁중정변은 6차례 일어났다. 武德 9년(626) 6월의 '玄武門의 변(정변A)', 嗣聖 원년(684) 2월의 '中宗 폐위의 변(정변B)', 神龍 원년(705) 1월의 '張易之 형제를 주살한 변(정변C)', 신룡 3년(707) 7월의 '李重俊의 난(정변D)', 唐隆 원년(710) 6월의 '韋后 일파를 주살한 변(정변E)', '太平公主 일파를 주살한 변(정변F)'이 그것이다(〈표 1〉 참조).¹⁾ 그리고 정변A에서는 고조와 태종이 교대하고, 정변B에서는 고종으로부터 (중종을 중간에 두고) 무척천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변C에서는 무척천으로

1) '현무문의 변' 이외의 정변에 대해서는本書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후 정변은 필요에 따라 알파벳A~F로 略記한다.

로부터 중종이 皇位를 탈환하고, 정변D에서는 중종과 황태자 이중준이 대립한 결과 이중준이 敗死하고, 정변E에서는 중종과 睿宗이, 또 정변F에서는 예종과 현종이 교대하였다. 즉 후계자들은 모두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 쿠데타에 의한 왕권의 강제적 계승이야말로 이 시기의 정치사를 규정하는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에 당대 전기의 정변이라고 하면 고조의 차남 李世民이 형과 동생을 죽이고 즉위한 정변A만이 선학들의 주목을 받았다.²⁾ 따라서 정변의 개별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뒤이어 일어난 다섯 차례 정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한편, 쿠데타의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찍이 陳寅恪이 “당 왕조 역대의 중앙 정치혁명의 성공 여부는 모두가 현무문에서의 군사적 성패에 의해 결정되었다. 北軍을 통제할 수 있는 실권이야말로 중앙정권의 의지처였다”³⁾ 라고 하고 정변B를 제외한 다섯 차례 정변에 대해 언급하였다. 濱口重國은 “북아가 천자 親近의 手兵이었던 관계로 왕실에 대해 善惡을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획책을 시도하려는 자는 매번 그들을 이용하였다”라고 하며 정변B~E의 네 차례 정변을 언급하였다.⁴⁾ 근래에는 孫英剛의

2) 현무문의 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石見清裕, 『玄武門の變前後の突厥問題』,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 64~84쪽(初出은 1983년); 山下將司, 『玄武門の變と李世民配下の山東集團 -房玄齡と齊濟地方』, 『東洋學報』 85-2, 2003, 19~49쪽 참조.

3) 陳寅恪, 『政治革命及黨派分野』,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古籍出版社, 1982, 53쪽, “唐代歷次中央政治革命之成敗, 悉決於玄武門即宮城北門軍事之勝負, 而北軍統制之權實即中央政柄之所寄託也”.

4)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6, 57쪽(初出은 1930년). 그러나 濱口는 “(北衛는 부병제가 확립되었던 시대에는) 그 職任으로 말해도 그 兵額으로 말해도 각별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33쪽)라고 하여 北衛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 외에 당대 전기의 정변을 언급한 先論으로서는

분석이 참신하다. 孫은 이들의 정변을 “1君·2儲·3方(황제를 끼고 두 명의 후계자가 대립하여 함께 3개의 권력집단이 鼎立하는 상태)의 도식으로 파악하고 각 집단이 이용한 병력을 정리하였다.⁵⁾

그런데 새롭게 일련의 궁중정변을 조망해 보면 거기에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선학들이 北軍과 北衛 등이라고 부르는 軍團의 관여이다. 더 자세히 보면 북아는 정변A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외의 정변 모두에 등장한다. 즉 비슷한 모양으로 정변이 일어나고 위정자가 교대한다고는 해도 정변A와 그 밖의 정변은 정변을 추동한 힘이 달랐다. 그런데 선학들은 정변과 북아에 접점이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인식하였지만, 이 군단의 존재 자체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아란 어떤 것일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당 황제의 근위병이었다. ‘衛’는 천자의 호위병이라는 의미이고 거기에 ‘북’이 앞에 붙은 것은 궁성의 북쪽에 주둔한 것에서 유래한다. 근위병이라면 황제 계승에 얽힌 궁중정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변은 반복되었고, 북아는 보였다 보이지 않았기를 계속하였던 것일까. 그 현상의 근저에 깔려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각광을 받지 않았던 정변B 이하의 다섯 차례 정변과 거기서의 북아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정변의 분석을 통해 정변A 이후에도 정변에 의한

谷川道雄, 「武后朝末年より玄宗朝初年にいたる政争について -唐代貴族研究への一視角」, 『谷川道雄中國史論集』下, 汲古書院, 2017, 113~140쪽(初出은 1956년)이 있다. 다만 谷川은 당의 ‘貴族制’라고 하는 시점에서 정쟁을 ‘外戚·皇親 세력’과 ‘皇帝親政派 세력(과거관료)’의 대립으로 파악할 뿐 정변 자체의 분석은 행하지 않았다.

5) 孫英剛, 「唐代前期宮廷革命研究」, 『唐研究』 7, 2001, 263~287쪽. 그 외에 당대의 정변을 개설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張萍, 『唐代宮廷政變』, 西安出版社, 2007이 있다.

위정자의 교대가 계속 필연적이었던 배경에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唐代 兵制에서 북아의 위치

먼저 북아라고 하는 조직이 당 병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 두자. 당의 군사제도는 안사의 난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데, 전기라면 남아와 북아, 후기라면 번진 지방군과 북아 중앙군이라고 하듯이 어느 시기도 國家軍과 近衛軍이라는 두 종류로 대별되었고, 편성원리가 다른 군사기구가 병립하였다. 이 중 당대 전기의 병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이른바 府兵制 연구에 집중하였다.⁶⁾ 부병이란 12衛가 나누어 관장하는 折衝府에서 番上하는 병사를 말하며, 각지의 절충부와 부병을 통괄하는 諸衛는 國家軍으로서 南衛라고 총칭되었다. 軍府를 매개로 병사 운용이 이루어진 이 시스템은 西魏에서부터 唐에 걸쳐 보이는 특수한 체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병제사 연구는 부병제의 성립·전개와 붕괴를 논의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 결과 국가의 군사력을 담당한 또 하나의 시스템인 近衛軍=北衛에 관한 이해는 완전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북아란 당 수도의 궁성 북문(현무문) 북방에 펼쳐진 御苑 안에 군영을 둔 황제 친위군의 총칭이다. 당대 전기의 북아는 左右羽林軍과 거기서부터 開元 연간에 분리된 左右龍武軍의 ‘北門四軍’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6) 부병제 연구사에 대해서는 氣賀澤保規, 「前期府兵制研究序說 - 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 『府兵制の研究 - 府兵兵士とその社會』, 同朋舎, 1999, 19~75쪽 참조.

우림군 내부는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한쪽에 소속된 병사를 飛騎, 또 한쪽을 (규모의 확대에 수반하여) 百騎·千騎·萬騎라고 불렀다. 이 중 후자가 최종적으로 용무군이라는 새로운 軍衛로 독립하였다.

북아제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연구가 단절되었고 업적은 오히려 중국에서 축적되었다. 그들 연구를 총괄하면 이하와 같이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금군제도를 부병제와 관련시켜 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濱口重國·菊池英夫·曾我部靜雄이라는 80년대 이전의 일본 연구자가 해당한다. 다만 濱口는 당대의 병제를 상세하게 검토하였지만, 그 주안점은 부병제에 두어져 전기 북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열었고 그 기술도 한정적이었다. 菊池는 당대 북아의 원류를 중심으로 논하였기 때문에 북아가 형성되어 간 태종대 이후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또 曾我部는 주로 『新唐書』 兵志에 의거하였으므로 편찬 사료로서의 『신당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았다.⁷⁾

둘째는 북아 부대편제의 변화를 時系列로 추적한 것으로 唐長孺의 저작을 효시로 寧志新·張國剛·趙雨樂이라는 중국의 연구자가 해당한다.⁸⁾ 그 중에서는 寧과 趙는 무측천대부터 현종대에 있어서 북아의 우세를 언급하고 정변과의 관계에도 착목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증은 전반적으로 傳世 사료의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사료

7) 前掲 주(4)의 濱口 논문; 菊池英夫, 「唐府兵制の成立過程と北衙禁軍の起源」, 『東洋史學』 13, 1955, 61~96쪽; 曾我部靜雄, 「唐の南衙と北衙の南司と北司の推移」, 『史林』 64-1, 1981, 37~58쪽.

8) 唐長孺, 『唐長孺文集 唐書兵志箋正(外二種)』, 中華書局, 2011(初出은 1957년); 寧志新, 『說唐初元從禁軍』, 『河北師院學報』 1989-3, 31~37쪽; 同, 「唐代羽林軍初探」, 『河北師院學報』 1990-4, 88~94쪽; 張國剛, 「唐代北衙六軍述略」,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灣·文津出版社, 1994, 143~156쪽; 同, 「唐代禁衛軍考略」, 『南開學報』 1999-6, 146~155쪽; 趙雨樂, 「玄武門의宿衛兵種與北衙系統的建立」, 『從宮廷到戰場 -中國中古與近世諸考察』, 香港·中華書局, 2007, 37~68쪽(初出은 2002년).

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自說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망과 선행 성과와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셋째는 금군과 궁중정변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술한 陳寅恪·孫英剛 및 蒙曼의 견해이다.⁹⁾ 蒙의 저적은 종래에 인용되었던 문헌사료에 더해 石刻史料 분석도 포함한 최신의 업적이다. 다만 선행의 성과를 계통적으로 파악하여 북아의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정리한 점에서는 망라적이지만, 독자의 시각에 의한 연구의 심화라는 점에서는 역시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당대 전기 북아의 구성과 그 전개를 고찰한 포괄적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애초 당대 전기의 중앙군으로 병칭된 남아와 북아는 처음부터 병립되었던 것은 아니다. 북아가 남아에 비견될 체제를 갖춘 것은 당 중반이었고 그때까지 북아는 남아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도 남아와 연동하여 기능하였다. 그 때문에 북아는 오랫동안 남아 시스템에 내포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고, 그 독자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정변이라는 관점에서 당대 정치의 존재형태가 새삼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북아의 실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병제 연구는 궁중정변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Ⅲ. 다섯 차례의 궁중정변 형세와 병력의 동향

당대 전기의 궁중정변은 정쟁이 관료 간의 수면 아래 암투에 머물지

9) 前掲 주(3)의 陳寅恪 논문; 前掲 주(5)의 孫英剛 논문; 蒙曼, 『唐代前期北衙禁軍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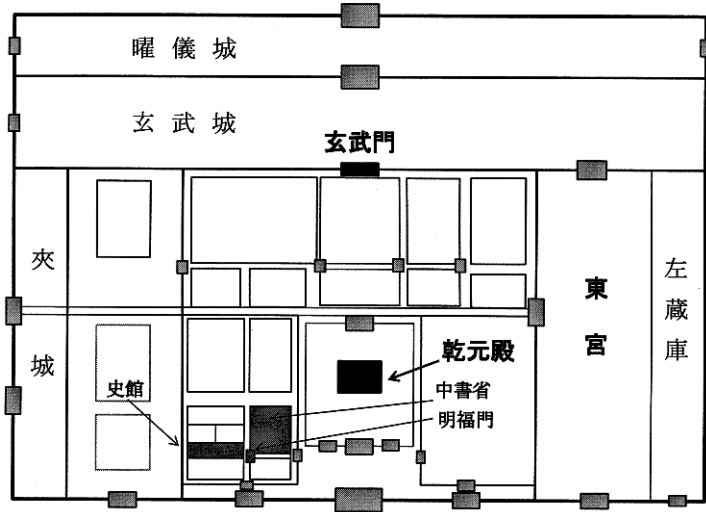
않고 무력충돌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결말을 보는 것이 특색이다. 그 때문에 한번 정변이 일어나면 궁성구역에서 亂戰이 펼쳐졌다. 이 절에서는 북아가 정변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변을 개별로 검토하면서 특히 북아병의 움직임에 주목하겠다. 북아가 관련된 다섯 번의 궁중정변 가운데 정변B·C는 洛陽, 정변D·E·F는 長安이 무대였다. 각각의 정변에 대해 부대의 돌격경로와 대항세력과 충돌하는 지점, 즉 ‘병력의 배치’를 대조해 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이하 사료에 등장하는 궁전과 문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그림 2> 참조).¹⁰⁾

1. 중종 폐위의 변(정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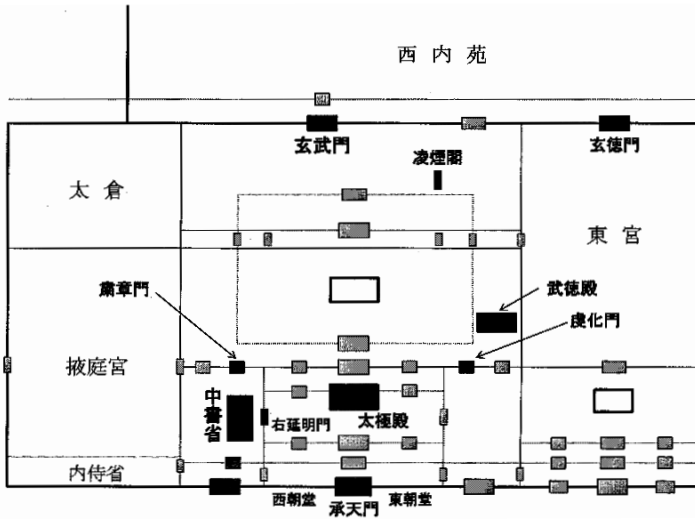
북아의 출동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종이 붕어한지 얼마 되지 않은 嗣聖 원년(684) 2월에 일어난 중종 폐위의 변이다. 『구당서』·『신당서』 裴炎傳과 『자치통감』 권203, 則天后 사성 원년 2월 조에 의해 정변의 개략을 확인해 보자.¹¹⁾ 즉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정월 조에 의하면 즉위한 직후인 같은 달 중종은 황후 韋氏의 부친인 韋玄貞을 侍中에 임명하려고 하였는데, 배염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화가 난 중종은 “(짐은 황제이므로) 설령 위현정에게 천하를 준다고 해도 어찌 누가 반대할 수

10) [그림 1]은 平岡武夫 編, 『唐代の長安と洛陽 地圖(唐代研究のしおり 7)』,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56에 수록된 '圖板 28 洛陽宮城皇城圖(2)'와 妹未達彦, 「東アジアの複都制 -六~十三世紀を中心に」, 同編, 『アフロ・ユーラシア大陸の都市と社會』, 中央大學出版部, 2019, 185쪽, '圖12 武則天神都の宮城・皇城'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2]는 妹未의 같은 논문, 184쪽, '圖11 玄宗長安の宮城・皇城'을 바탕으로 작성. 번잡을 피하게 위해 궁성 안의 궁전은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생략하였다. 또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표시하지 않은 궁전과 문도 있다.

11) 『구당서』 권87, 배염전, 2843~2844쪽; 『신당서』 권117, 배염전, 4247~4248쪽; 『자치통감』 권203, 則天后 사성 원년 정월 조, 6417쪽.



〈그림 1〉 낙양 궁성과 정변(B·C)에 관련된 궁전·문



〈그림 2〉 장안 궁성과 정변(D·E·F)에 관련된 궁전·문

있는가. 더구나 시중의 관직을 아끼겠는가”라는 말을 순간 벨었다(6417쪽).¹²⁾ 이 실언은 무척천이 帝國의 위정자가 되기 위한 포석을 놓고, 동시에 중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절호의 구실이 되었다.

2월 무척천의 명령을 받은 우림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궁전으로 들어가 중종을 연행하였다. 모친의 안전으로 끌려간 중종은 “제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무척천은 차갑게 “너는 천하를 위현정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하고 중종을 폐위시켰다(同, 6418쪽).¹³⁾ 이리하여 무척천에 의한 왕권탈취의 쿠데타는 막을 내리고 대신하여 睿宗이 형식상 즉위하였는데, 政事는 모두 황태후인 무척천이 장악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림장군이었던 程務挺 열전 즉 『구당서』 권83, 정무정전에 의하면,

사성 연간 초(684) 右領軍大將軍·檢校右羽林軍 張虔勗과 함께 무척천의 밀지를 받아 병사를 이끌고 殿庭으로 들어가 중종을 폐하여 廬陵王으로 삼고 豫王을 세워 황제로 세웠다(2785쪽).

라고 하여 정무정(左驍衛大將軍·檢校左羽林軍)·장건욱(우령군대장군·검교우우림군)이라는 2인의 북아장군과 그들에 이끌린 병사(우림병)가 정변의 실행부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아마도 현무문(우림군의 주둔지) → 중종의 궁전(중종을 포박) → 무척천의 처소(무척천에게 중종을 끌고감)로 움직였을 것이다. 중종이 거처한 궁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

12) 『구당서』 권87, 배염전, 2843쪽, “中宗不悅, 謂左右, ‘我讓國與玄貞豈不得, 何爲惜侍中耶’”.

13) 『구당서』 권87, 배염전, 2844쪽, “帝曰, ‘我有何罪’, 天后報曰, ‘汝欲將天下與韋玄貞, 何得無罪’”.

적인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는 없다. 다만 『자치통감』에 의하면 무척천은 “百官을 乾元殿에 모이게 한” 후 중종에게 병사를 보냈다고 하므로(6417 쪽) 아마도 종착점은 무척천과 백관이 모여 있던 건원전이었을 것이다.

2. 張易之 형제를 주살한 변(정변C)

북아가 활약한 두 번째 궁중정변은 무척천 말년인 神龍 원년(705) 1월 장역지 형제를 주살한 변이다. 당시 무척천은 병이 위중하였고 궁중에서는 총신 장역지·張昌宗 형제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다. 이 형제를 군주 옆 간신으로 규정하고 李唐 부흥의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 張柬之·崔玄暉를 중심으로 한 敬暉·桓彥範·袁恕己 등의 科擧系 관료였다.¹⁴⁾ 다만 이 정변은 어디까지나 장씨 형제의 말살이 명목이었고 무씨 일족의 배제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척천이 퇴위한 뒤에도 무씨 세력이 정계에 잔존한 것은 필연이었다. 정변 후 중종 복위에 기여한 재상들과 황족 이씨 일족의 권력은 증대하였지만, 그것이 역으로 중종을 경계하게 만들어 武三思를 중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변의 공신들은 모두 무삼사에 의해 좌천·주살되었다.

14) 『구당서』 권7, 중종본기, 신룡 원년 정월 조, “鳳閣侍郎張柬之·鸞臺侍郎崔玄暉·左羽林將軍敬暉·右羽林將軍桓彥範·司刑少卿袁恕己等定策率羽林兵誅[張]易之·昌宗, 迎皇太子監國, 總司庶政”(135쪽);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 長安 5년 정월 조, “癸卯, 張柬之·崔玄暉及左羽林衛將軍敬暉·檢校左羽林衛將軍桓彥範·司刑少卿袁恕己·左羽林衛將軍李湛·薛思行·趙承恩·右羽林衛將軍楊元琰·左羽林衛大將軍李多祚·職方郎中崔泰之·庫部員外郎朱敬則·司刑評事冀仲甫·檢校司農少卿兼知總監翟世言·內直郎王同皎率左右羽林兵以討亂, 麟臺監張易之·春官侍郎張昌宗·汴州刺史張昌期·司禮少卿張同休·通事舍人張景雄伏誅. 丙午, 皇帝復于位. 丁未, 徙后于上陽宮”(105쪽). [역자주] 장간지는 進士 출신이고, 최현위는 明經, 경휘는 明經, 환언범은 門蔭, 원서기는 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변 당시로 돌아가면 실행을 결심한 장간지는 먼저 우림대장군 李多祚의 지원을 얻었다. 현직의 북아장군을 설득함으로써 북아의 병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당파인 楊元琰·환언범·경휘·李湛을 차례로 우림장군으로 삼고 이어 마지막으로 황태자(중종)의 승인을 얻었다. 이상과 같이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정변은 결행의 날을 맞이하였는데, 지금부터는 『구당서』 권91, 환언범전을 바탕으로 병사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자.

신룡 원년 정월 환언범은 경휘 및 좌우림장군 이담·이다조, 우우림장군 양원엽, 左威衛將軍 薛思行 등과 함께 좌우우림병 및 千騎 5백여 인을 거느리고 장역지·장창종을 궁중에서 치고, 이담·이다조에게 東宮으로 가서 황태자를 맞이하게 하였다. 병사가 현무문에 이르러 환언범 등이 태자를 받들어 關을 斬하고 진입하니 병사들이 크게 떠들었다. 그때 측천은 迎仙宮의 集仙殿에 있었다. 장역지·장창지를 廊下에서 斬하였다(2928~2929쪽).

위의 사료에 의하면 정변은 5명의 북아장군이 우림병을 동원함과 동시에 황태자를 동궁에서 맞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들 무리[一團]는 낙양의 궁성 북문인 현무문에서 “關을 斬하고(즉 빗장을 부수고 성문을 경비하는 衛兵을 죽이고)” 궁성으로 돌입하여 집선전으로 달려가 장씨 형제를 살해하고 무측천에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은 현무문 → 동궁 → 현무문 → 집선전¹⁵⁾으로 비정할 수 있다. 『자치통감』 권207, 중종 신룡 원년(705) 정월 조에는 나아가 “이날 원서기는 相王을 따르며 南牙의 병사를 통솔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였다”(6581쪽)라고 하여 궁성 안

15) 集仙殿은 前掲 주(10)의 平岡 지도에서는 中書省과 史館·明福門의 북쪽 부근에 그 이름이 적혀 있지만, 前掲 주(10)의 妹未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엄밀한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림 1]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을 북아병이 제압한 것에 대응하여 궁성 남측에서는 원서기와 상왕(훗날의 예종)이 남아병을 이끌고 잔당을 소탕하려고 대비하였다고 하는 구도가 보인다.

3. 李重俊의 난(정변D)

북아에 의한 세 번째 정변은 정변C로부터 겨우 3년이 지난 신룡 3년(707) 7월 발발하였다. 이는 황태자 이중준(節愍太子)과 韋后·무삼사의 대립에서 기인한 정쟁인데, 이중준은 무삼사·武崇訓 부자를 살해한 뒤 북아병의 배반으로 敗死하였기 때문에 前期 정변에서의 실패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중준은 중종의 세 번째 아들로 위후의 소생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위씨 일족만이 아니라 위후와 유착하여 권세를 휘두르던 무삼사와 그 아들이자 安樂公主의 남편이었던 무승훈 및 후궁의 女官인 上官婉兒에게 까지 경시되어 항상 그 지위를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하 『구당서』 권86, 이중준전에서 병사의 움직임을 전하는 부분을 발췌해 보자.

3년 7월 좌우림대장군 이다조와 우우림장군 李思沖·李承況·獨孤禕·沙陀忠義 등을 데리고 제서를 사칭하여[矯制] 좌우우림병 및 천기 3백여 인을 발동하여 무삼사 및 무승훈을 그 집에서 죽이고 아울러 黨與 10여 인을 죽였다. 또 左金吾大將軍 成王 千里에게 명하여 병사를 나누어 궁성 諸門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肅章門으로 달려가서 關을 斬하고 진입하여 韋庶人 및 안락공주의 소재를 求하였다. …… 위서인 및 공주가 급거 황제를 옹위하여 현무문 누각으로 달려가서 좌우림장군 劉仁景 등을 불러 留軍의 飛騎 및 백여 인을 누각 아래 나열시켜 지키게 하였다. 순식간에 이다조 등의 병사가 이르러 현무문 누각을 돌입하려고 하였으나 宿衛하는 자들이 막아서 들

어갈 수 없었다. 황제가 난간에 의지하며 이다조 등이 이끄는 천기를 부르며 말하길 “너희들은 나의 爪牙이다. 어찌하여 반역을 일삼는가. 만약 능히 歸順하여 이다조 등을 斬하면 너희들에게 부귀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천기의 王歡喜 등이 창을 거꾸로 돌려 이다조 및 이승황·독고위지·사타충의 등을 누각 아래에서 참하니 餘黨이 마침내 궤산하였다. 이종준은 패하자 그에 속한 백여 기를 이끌고 속장문으로 달려가 終南山으로 달아났으나 황제가 長上果毅 趙思愼에게 輕騎를 거느리고 추적하게 하였다(2838쪽).

이종준은 정변C에 참가한 이다조를 포함한 5명의 우림장군의 조력을 얻어 ‘천기’를 출동시켜¹⁶⁾ 休祥坊에 있던 무삼사 부자의 저택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살해한 후 남측으로부터 궁성 구역으로 침입하여 속장문을 돌파하여 북상하였다. 소란의 와중에 증중은 위후와 안락공주와 함께 궁성의 남쪽에서 밀어닥치는 기병에 쫓기듯이 북쪽으로 도망쳐 현무문의 누각으로 피신하여 주위를 우림군 ‘飛騎’로 둘러쳐서 지키게 하였다.

현무문에 이른 이종준과 북아병 무리 앞을 막아선 것은 같은 북아의 다른 부대였다. 그것이 그들을 머뭇거리게 하여 전황은 교착되었다. 그리고 이 북아병 간의 대치가 이종준 측에게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하였다. 서서히 사기가 떨어져 동요하던 이종준의 군세를 향해 증중은 누각 위에서 “너희들은 짐의 가신인데 어찌하여 짐을 배반하는가. 거기의 모반자들을 베면 듬뿍 포상을 내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이 한마디로 천기는 배반하였고 이다조 이하의 우림장군들은 차례로 자신들이 이끌던

16) 각 陣營이 이끈 軍勢에 관해서는 『구당서』 권86, 이종준전에는 이종준 측이 ‘左右羽林兵及千騎’, 증중 측이 ‘留軍飛騎’라고 한다. 한편 『자치통감』 권208, 증중 경릉 원년 7월 조, 6611~6612쪽에서는 이종준 측에 가담한 것은 ‘羽林千騎’, 증중 측은 ‘飛騎’라는 식으로 언급되어 있다. 北衙 내부의 지휘계통을 감안하면 가장 정합성이 있는 것은 분령의 양상을 ‘천기’ 부대와 ‘비기’ 부대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자치통감』이므로 여기서는 『자치통감』에 따른다.

북아병에게 살해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증준은 궁성 남측에서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성왕 이천리의 지휘하에 궁성 諸門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남아병이다. 『자치통감』 권208, 신룡 3년(707) 7월 조에 의하면 “성왕 이천리와 天水王 [李]禕가 右延明門을 공격하여 宗楚客·紀處訥을 죽이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6612쪽)라고 하여 그 군세는 천기의 배신에 의해 드디어 패색이 짙어졌을 때 太極殿으로 밀어닥치기 위해 우연명문을 공략하였으나 門 안쪽의 태극전 앞에 배치된 2천 명 가까운 병사의 반격에 부딪혀 敗走하였다. 이증준은 몇 騎와 함께 종남산으로 달아났지만, 마지막은 좌우 사람에게 살해되었다. 이상으로 이증준이 이끈 북아병이 선택한 루트를 현무문(禁苑 쪽) → 휴상방 → 숙장문 → 현무문(궁성 쪽)으로 비정할 수 있다.

이 정변에서의 북아는 다른 정변과는 다른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 陣容이야말로 정변이 실패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변의 최대 오산은 현무문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 황제가 거거하는 內朝를 노리지 않고 일단 궁성 밖으로 나가 궁성을 남쪽에서부터 공략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⁷⁾

4. 韋后 일파를 주살한 변(정변E)

북아와의 관련을 나타내는 네 번째 정변인 ‘위후 일파를 주살한 변’은 증중을 시해한 후 殤帝(溫王 李重茂)를 즉위시켜 전횡을 일삼던 위씨 일족

17) 前掲 주(5)의 孫英剛 논문, 279~280쪽. 孫은 이증준의 패인에 대해 “이증준은 우림군과 천기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현무문을 돌파하여 증중의 처소를 급습해야 했다. 하지만 휴상방으로 공격해 들어가 무삼사를 살해하였기에 (정변이 궁중에게 察知되어 迎擊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말았다”라고 한다.

을 唐隆 원년(710) 6월 20일(경자) 이씨 皇親 세력이 타도한 것을 말한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景龍 4년(710) 6월 2일(임오) 중종은 위후와 안락공주에 의해 독살되었다. 같은 달 4일(갑신) 위후가 臨朝稱制하면서 당릉으로 개원하고 7일(정해) 은왕 이중무가 즉위하였다. 위후 일파는 재상직과 금군장군직을 독점하고 황실 이씨를 배제하려 계획하였다(6642~6643쪽).

그러자 李隆基(뒤에 현종)는 고모인 太平公主 등과 함께 선수를 쳐서 위후 일파를 주살할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북아장군에 취임한 韋播·高嵩 등은 폭력으로 북아를 복종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특히 ‘萬騎’의 반감을 사서 위씨 일족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높아졌다. 萬騎果毅(당시 만기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葛福順과 李仙臈는 이융기에게 위후 일파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정변에 참가하였다. 위후 일파로서도 정변D의 경험에서 북아 장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북아는 불온한 공기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사의 움직임은 확인해 보자.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 경릉 4년 6월 조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마침내 경자일 밤에 [劉]幽求 등 수십 인을 이끌고 금원의 남쪽에서 진입하였고, 總監 鍾紹京은 또 丁匠 백여를 이끌고 따랐다. 만기를 나누어 파견하여 현무문으로 보내 우림장군 위파·고승을 죽였고, 수급을 가지고 이르자 무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대거 모였다. 白獸·玄德 등의 門을 공격하여 關을 참하고 진입하였는데, 좌만기는 왼쪽에서 들어가고 우만기는 오른쪽에서 들어가 凌煙閣 앞에서 만났다. 그때 태극전 앞에 梓宮을 宿衛하는 만기가 있었는데,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두 무장[披甲]하여 이에 호응하였다(166쪽).

정변에 동원된 병종에 대해 위의 『구당서』 기사에서는 위씨 일족의 주살부터 잔당 수색 등의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이융기의 지휘 하에 모두

좌우 만기부대에 의해 사태가 수습되었다고 하고, 남아병은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신당서』 현종본기와 『자치통감』에는 諸衛兵(=南衛兵)의 호응이 서술되어 있다.¹⁸⁾ 남아병이 정변에 불가결하다고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해도, 다른 정변에서의 병력 배치와 비교하건대 이 경우도 역시 어떤 형태로건 남아의 일부를 통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용기의 명을 받은 만기는 먼저 현무문에 있던 북아의 대기소에서 위씨가 임명한 북아장군들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북아 전체의 지지를 얻은 그들은 무혈로 현무문을 열고 좌만기는 현덕문, 우만기는 백수문을 공략한 후¹⁹⁾ 능연각 앞에서 합류하였다. 『자치통감』에서는 이 별동대가 돌격한 뒤 다시 이용기가 우림군 本隊(비기)를 지휘하여 현무문에서 태극전으로 직행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擧動에 태극전 앞에서 숙위하던 병사들이 반응하였기 때문에 위후는 친족이 장악하였을 북아가 자신을 호위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비기의 군영으로 달아났지만, 이미 북아는 이용기 휘하에 있어 위후는 비기에게 살해되었다. 당파의 중심 인물들이 제거된 뒤에도 수색은 계속되어 “宮門 및 京城門을 닫고 만기를 나누어 보내 諸韋親黨을 收捕하게 하였다”²⁰⁾ 라고 하듯이 장안성의 문이라는 문은 모두 봉쇄되어 안락공주와 상관원아 이하 위씨 일족과 그 당파는 잔당 소탕의 명을 받은 만기에 의해 모두 포박·주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정변에서 북아병이 走破한 루트는 좌만기에 의한 현무문 → 현덕문 → 능연각과 우만기에 의한 현무문 → 백수문 → 능연각, 또 두 군대가 합류한 뒤 우림 全軍에 의한 현무문 → 태극전으로의 돌입이라는 세 경로가

18) 『신당서』 권5, 현종본기 경릉 4년 조, 121쪽, “玄宗率總監羽林兵會兩儀殿, 梓宮宿衛兵皆起應之, 遂誅韋氏”; 『자치통감』 권209,睿宗 景雲 원년 6월 경자 조, 6645쪽, “諸衛兵在太極殿宿衛梓宮者, [胡三省 注: 此南牙諸衛兵也] 聞譟聲, 皆被甲應之”.

19) 白獸門의 위치는 불명확하다.

20) 『자치통감』 권209, 唐隆 원년(710) 6월 경자 조, 6646쪽.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太平公主 일파를 주살한 변(정변F)

다섯 번째 정변이자 前期의 마지막 쿠데타가 되는 '태평공주 일파를 주살한 변'은 현종 先天 2년(713)에 발발하였다. 이는 앞 정변에서는 협력 관계에 있던 현종과 그 고모 태평공주를 중심으로 한 두 당파의 충돌이다. 정변E가 일어난 뒤睿宗朝가 되자 태평공주는 皇親으로서 점점 존중되었다. 하지만 예종의 장자인 寧王 李成器를 대신하여 卞王 李重福가 황태자에 오르자 李重福는 그녀에게 큰 위협으로 변하였다. 그렇다면 그 정변의 대략을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선천 2년 7월 3일 尙書左僕射 竇懷貞 …… 좌우림대장군 常元楷, 우우림 장군 李慈 등이 태평공주와 함께 모의하여 그 달 4일에 우림군으로 난을 일으키기로 정하였다. 황제가 몰래 그것을 알고 中旨를 내려 …… 장군 王毛仲에게 알려 閑廄의 말 및 家人 3백여 인을 취하고 …… 果毅 李守德 등 親信 수십 인을 거느리고 武德殿을 나가 虔化門으로 들어갔다. 상원해·이자를 北闕에 효수하였다. 賈膺福·李猷를 內客省에서 사로잡아 끌어내고 蕭至忠·岑羲를 조정에서 잡아 모두 斬하였다.²¹⁾

태평공주 일파가 決起한다는 것이 누설된 7월 3일(거사 전날) 현종은 기선을 제압하여 기슭에 나섰다. 그는 만기를 이끌고 武德殿을 출발하

21)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 선천 2년 7월 조, 169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2년 7월 갑자 조, 6683쪽의 호삼성 주에 의하면 內客省은 이때 증서성 안에 있었다. 또 '朝(朝堂)'은 承天門 안에 東朝堂·西朝堂과 같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었다. 소지충·잡희를 잡은 장소가 그 어디였을까는 판별할 수 없다.

여²²⁾ 공주 편에 있던 우림장군 2명(상원해와 이자)을 소환하여 살해하였다.²³⁾ 이어서 中書省으로 가서 가응복·이유의 신병을 확보하고 朝堂으로 들어가 소지충·잠희를 살해하였다. 또 『자치통감』에 의하면 이때 太上皇 예종은 심상치 않은 소란에 놀라 궁성 가장 남쪽에 위치한 承天門樓로 피난하였다.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장면은 사료가 뒤엎혀 있지만, 『자치통감』에 인용된 『현종실록』은 예종이 만일에 대비해 남아병을 대기시키고 郭元振에게 병사를 통솔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자치통감』은 玄宗派인 재상 광원진이 “이 소란은 [현종이] 두회정 등을 주살할 뿐 다른 뜻은 없다”라고 상주하고, 현종은 예종으로부터 全權을 위양받았다고 한다.²⁴⁾ 이상의 상황으로부터 병력의 경로는 무덕전 → 건화문 → 중서성 → 조당 → 승천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7월 조에 의하면 “[공주] 상원해·이자에게 우림병을 거느리고 무덕전으로 돌입하게 하고, 두회정·소지충·잠희 등에게 南牙에서 거병하여 이에 호응하게 하였다”(6683쪽)라고 하여 태평공주 일파는 북쪽에서는 북아병을, 남쪽에서는 남아병을 출동시켜 현종이 기거하는 무덕전을 협격하는 작전을 세웠다. 이는 결국 현종의 선제 공격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이 북과 남의 금군 대치는 지금까지 본 정변과 마찬가지로 포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에서는 “閑廐馬及家人三百餘人”이라고 하지만, 龍武將軍 왕모중과 萬騎果毅 이수덕이 현종의 수하로서 정변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가 출동하였을 것이다.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7월 갑자 조, 6683쪽에서는 “閑廐馬及兵三百餘人”이라고 한다.

23) 태평공주 측의 두 우림장군에 대해서는 『구당서』 현종본기에서는 北闕(현무문)에서 효수되었다는 것만 적혀 있지만,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7월 갑자 조, 6683쪽에는 “召元楷·慈, 先斬之”라고 하여 현종에게 소환되어 살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4)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7월 갑자·을축 조, 6684쪽.

그런데 이상과 같이 다섯 번에 걸친 궁중정변의 대략을 정리해 보면 거기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고, 특히 用兵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현무문 밖에 주둔하는 북아는 정변 때마다 실제 동원 부대로서 차이는 있어도 매회 동원되었다. 그것에 의해 현무문은 항상 정변의 기점이 되었고 정변은 북쪽에서 금군이 움직이면서 시작되었다. 둘째, 정변C 이하의 네 차례 정변과 정변F의 태평공주 측 책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아병이 궁성 북문으로부터 궁성 구역을 남하하면 동시에 궁성 남측에서 남아병이 대기한다는 남북아 호응의 방식이 상투적 수단이었다. 요컨대 정변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북아를 출동시켜 북으로부터 궁성을 제압하여 황제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 후진으로서 남쪽에 남아병을 배치하는 형식이 되도록 병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²⁵⁾ 따라서 陳寅恪이 “북아가 주둔하는 현무문은 궁중정변을 위한 군사적 거점이었다”라고 한 것은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궁중정변의 조건과 북아의 이론(theory)

정변의 주체자에게 있어서 북아 군사력의 적절한 활용이 정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은 이상으로 명확하지만, 애초 군사권은 천자에 專屬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은 쉽게 간섭할 있는 것이 아니

25) 孫英剛은 이 형세에 대해 “태극전 앞은 窪地(웅덩이 땅)로 되어 있고 더구나 남아병이 대거 주둔하고 있었다(따라서 남측에서부터 태극전을 공략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지리적 조건이 정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북문을 돌파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한다. 즉 前揭 주(5)의 孫英剛 논문, 281쪽 참조.

었다. 황제의 사병적 성격이 강한 북아라면 더욱 그러하여 황제와의 관계는 긴밀하였을 터이다. 그런데 황제의 근위병이 황제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 역전 형상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이 절에서는 정변을 완수하기 위한 북아를 둘러싼 공방을 살펴보자.

‘황제의 근위병’인 북아를 황제 이외의 사람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모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변의 최종 형태, 즉 북아에 의한 일방적인 무력제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각 사료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해 보면, 대략 다음 세 개의 절차로 집약할 수 있다. 즉 금군 출병권의 탈취, 북아 통수권의 장악, 그리고 군신관계의 안정화이다.

북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로 출병권을 수중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대의명분을 내건다면 혹은 어떠한 수순을 밟으면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을까가 결기할 때 초점이 되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정변의 양상으로 본다면 금군 지휘권의 발동은 다음 세 가지로 시도되었다. 첫째는 황제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로 정변D와 같이 ‘矯制’로 비합법적으로 금군을 움직이는 방법이다.²⁶⁾ 둘째는 황제권의 위양이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고 정체되거나(정변B), 황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하지 않게 된 경우(정변C), 혹은 후계자 자신이 강압적으로 찬동자를 모집하거나, 혹은 관료집단이 옥좌에 앉을 권리가 있는 자(황태자 또는 그 다음 지위의 황친)를 추대함으로써 출병권의 행사를 합법화하는 방법이다.²⁷⁾ 셋째는 將校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금군을 움

26) 矯制에 의한 北衙의 출동은 그 외에도 宗楚客에 의한 “矯制令飛騎搏殺之”라는 예를 들 수 있다(『자치통감』 권209, 예종 경운 원년 5월 정묘 조, 6641쪽).

27) 『冊府元龜』 권466, 臺省部10, 忠節, 鳳凰出版社, 5268쪽의 朱敬則 조에는 “嘗密謂左羽林將軍敬暉曰‘公若假皇太子之令, 舉北軍之兵, 誅易之兄弟, 兩飛騎之力耳’. 其後暉等竟用其策”이라고 하여 황태자의 추대에 의한 북아의 출동이 전략으로 유효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직이는 방법인데, 前期 정변의 경우 이는 정변E에서 북아를 지휘한 현종에게서만 보이는 특별한 예이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정변F는 태평공주 측과 현종 측 모두가 각각 예종과 현종의 이름으로 금군을 출동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上皇과 황제라는 이중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도) 통상의 출병권 행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령 완전하게 출병권을 확보하였다고 할 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북아를 실제로 통어하는 것이다. 정변의 주모자들은 북아장군을 자신의 진영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그 조건을 성립시키려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왕왕 정변을 일으킨 고위 문관과 북아장군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았다. 정변B에서는 정변 후에 북아장군이 주살되었고,²⁸⁾ 정변C에서는 정변을 전후하여 북아장군의 숫자가 일거에 증감하였고, 정변D에서는 정변 전후에 위씨 당파에 의해 북아장군 자리가 독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것도 북아의 장군이라는 것은 현정권에게 있어서건 정권을 타도하는 측에 있어서건 군사력을 손에 넣기 위한 '記號'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북아의 자발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²⁹⁾ 따라서 정변F와 같이 장군을 살해하는 것으로 그 휘하의 병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북아는 황제권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변을 검증한 것만으로는 그 장치의 근간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만약 통상적으로 북아장군의 선정과 교대가 황제의 신뢰 유무가 아니라 그때그때 정권의 사정에 입각하여 행해졌다고 한다면 북아의

28) 程務挺은 정변으로부터 10개월 후인 光宅 원년(684) 12월, 張虔勗은 天授 2년(691) 8월 주살되었다(『구당서』 권6, 측천황후본기, 광택 원년 12월 조, 117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8월 조, 92쪽).

29) 정변E에서는 萬騎果毅가 정변에 참가할 적극적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만, 정변은 어디까지나 이용기 주체의 쿠데타였지 북아 주체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장교와 병졸들 사이에는 심리적 괴리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변D에서 나타나는, 분열되어 대치하고 恩賞이라고 하는 ‘餌(먹이)’에 요동하는 북아병의 모습은 북아 명령체통의 불안정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황제의 근위병이면서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약성이야말로 그들이 정변에 이용된 최대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북아장군이 북아병을 지휘하여 적극적으로 정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정변은 당파를 이끄는 재상급 문관이나 황족이 장군(이라는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북아를 동원해 대항 세력을 무력으로 섬멸한다고 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정변에서 승리하여 즉위한 새로운 황제는 이번에는 자신이 또 다른 정변에 의해 실각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즉 북아를 자신 가까이에 두고 동시에 새로운 후계자와 북아가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변으로 제위를 계승한 황제의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로 상황에 몰려 퇴위하였다. 내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정변A로 즉위한 태종만이 재위 중에 자신의 감독 하에 황태자 李治(뒤에 고종)에게 북아병의 통솔권을 양도하고 북아와 황태자의 군신관계를 구축해 두려고 하였다.³⁰⁾ 이에 비해 정변B 이하를 보면 정변 후 공신집단은 숙청되어 모습이 사라지고 나아가서는 북아의 통제조차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제도적으로는 무척천이 우림군 ‘백기’ 부대를 ‘천기’로, 또 중종이 ‘천기’ 부대를 ‘좌우만기’로 각각 확대하였는데, 그 의도가 북아와의 개인적 유대강화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북아친병의 증원·강화에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어느 쪽이건 북아는 황제의 손에

30) 『책부원구』 권259, 儲宮部4, 將兵, 太宗 貞觀 17년 윤6월 丁巳 조, 2945쪽, “詔曰, 皇太子治忠孝成德, 志業光茂, 地惟儲副, 寄深監撫, 兼統禁旅, 實允舊章, 宜知左右屯營兵馬事. 其大將以下, 並受處分”. 여기서 左右屯營은 左右羽林軍의 前身이다.

서 분리되어 다시 새로운 후계자 세력에게 포섭되어 갔던 것이다.

혹은 정변의 재발방지책으로 자신을 옹립·지지한 관료의 중용과 대항세력의 배제 등과 함께 북아를 우대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군신관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라고 할 때 그 바로미터의 하나가 된 것이 ‘포상’이었다. 이용기는 즉위 전부터 만기와 친분을 쌓았고 즉위 후에는 그들을 親兵으로 삼아 龍武軍으로 확대·우대하였다. 『冊府元龜』의 개원 연간 기사에는 현종의 飛騎와 萬騎에 대한 사여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³¹⁾ 그리고 내가 본 한에 있어서 (아니나 다름까라고 해야 할까) 당대 전기에 북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은 현종뿐이다. 현종과 용무군의 관계는 안사의 난에 의해 그가 蜀에서 퇴위할 때까지 지속되다가 현종이 죽은 후 용무군은 급속히 세력을 상실하였다.

애초 황제와 북아 사이에 ‘개인적 감정(충성심)’이 희박한 경우 북아와 황제의 유대가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황제가 북아와의 관계성을 보강·안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대 전기에서는 그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실패하고 황제와 북아의 ‘간극’에 제3자가 개입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변은 제3자가 일시적으로 북아를 사병화하면서 일어났다.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당대 전기의 궁중정변이 안고 있던 잠재적인 구조가 아니었을까. 역으로 말하면 궁중정변이 북아에 의해 전개된 이상 황제가 북아와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정변이 일어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31) 『책부원구』 권80, 帝王部, 慶賜2, 鳳凰出版社, 873~874쪽, 876쪽에는 “[開元]五年二月甲戌, …… 從飛騎·萬騎各賜物五段”, “[開元六年]十一月 … 丙申, … 三衛飛騎萬騎并杖內無品人等賜五段”, “[開元]十九年十一月壬子, 幸東都. … 三衛引駕細引飛騎萬騎各四段”이라고 한다.

V. 맺음말

이 장에서는 궁정 안의 정치운영과 북아의 관계성이라는 시점에서 당대 전기의 궁중정변의 존재형태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정변의 획책에서 무력충돌에 의한 종결까지는 몇 개의 전략적 이론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북아를 병력으로 확실하게 장악하고, 또 현무문에서 남하여 황제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쪽이 승리한다고 하는 구도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아가 궁중정변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정리하면 정변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아 실현되었다고 생각된다.

- ① 금군의 출병권을 탈취한다.
- ② 북아의 통수권을 장악한다.
- ③ 남아에 협력을 요청한다.
- ④ 북아를 출동시켜 규정된 루트를 따라간다.
- ⑤ 북아와의 군신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다만 ⑤에 계속 실패함으로써 궁중정변에 의한 즉위의 연쇄를 끊지는 못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북아의 동향은 정변으로부터의 접근만이 아니라 실은 북아의 기원이나 발전을 고찰할 때도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북아의 규모와 군사체제는 항상 일관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을 문헌사학으로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북아의 추이를 在來史學으로부터 어긋나지 않게 정리한 후 정변이라는 事象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 일환으로 궁중정변이라는 시각에서 북아를 서술하였다. 비기와 천기·만기의 모체인 전기 북아라는 조직의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의 정리는 궁중정변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